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24개 단체회원사에 대한 혜택 제고 방안으로 회원사들을 직접 방문, 회사 현황을 파악하여 본지를 통해 홍보하고 기업 애로사항 등은 원산이 운영하고 있는 원전기업지원센터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누구나 믿고 추천하는 명품 정비기업,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

신원재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경영혁신실 과장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정비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민간정비업체 육성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 6월 한전KPS(주) 분사형태로 출범했다.

주력사업 분야인 발전소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시운전정비공사에서 꾸준한 실적과 경험을 쌓아온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는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예방 및 가동률 향상이라는 중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누구나 믿고 추천하는 명품 정비기업'이 되고자 정비기술력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발전정비산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국내를 넘어 해외로의 도약이 목표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는 보령사업소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전소 정비에 돌입하였다. 2008년에는 보령복합화력 1~3호기 경상정비공사 및 A급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전 분야에 걸쳐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A급 계획예방정비란 발전설비를 모두 분리하여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비기술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시행된 보령복합 발전기 회전자 코일 교체는 정비기술력을 높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는 다년간 화력발전소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양수발전 및 원전정비 분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특히 원전정비산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신고리 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참여를 위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Q등급도 획득했다.

이후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시운전정비 및 경상정비공사, 한울 3,4호기 기전설비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월성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등의 사업을 통해 지난 17년간 국내 발전시설의 불시고장 예방 및 가동률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해 왔다.

2015년에는 바라카 원전(BNPP) 1~4호기 시운전정비공사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발판삼아 앞으로는 해외 발전시장을 점진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대표이사는 "2015년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정비공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해외 정비사업에 진출하고,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인재경영과 기술경영이 회사 성장의 핵심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가 발전정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력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시장인 만큼 인재경영에 많은 힘을 들이고 있다는 게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의 설명이다.

특히 기술중심의 회사인 만큼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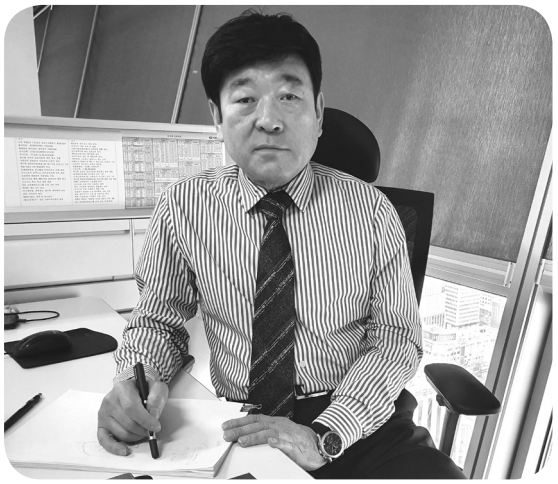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은 4주간 발전설비의 기계·전기 등 기본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부서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OJT 직무교육을 통해 전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발전교육원, 폴리텍대학 등 대외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을 통해 시장의 트렌드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어학능력 강화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인재경영의 성과로 복합화력발전소 A급 오버홀 단독정비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200MW급 가스 TBN 기술도 보유하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2003년 설립한 뒤 짧은 기간 만에 매출 822억 원(2020년말 기준), 종사자수 500명 수준의 알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또한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기술개발을 위하여 매년 당기순이익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 고효



"옵티멀에너지서비스의 인재는 회사의 뿌리와도 같다"고 강조한 이상언 상무는 기술경영의 핵심이자 사업수행의 동력이 되는 인재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율·친환경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 발전기용 여자기 로터 인출장치, 발전소 제어 시스템 등 17종의 특허를 획득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회사만의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 측은 말한다.

환경변화에 대한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책 모색

국내 전력수요뿐만 아니라 세계 전력수요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에너지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에너지 수급이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만큼 전문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태양광발전, 수소발전시설 정비사업으로의 다각화도 진행 중이라고 이형주 대표이사는 말한다.

또한, 고리 1호기의 본격적인 해체사업 착수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원전해체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 및 원전해체 분야 핵심 정비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원전해체 분야 내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상언 상무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관련 기업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면서 신규원전 계획의 백지화에 따른 일감축소와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였다.

게다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발발과 팬데믹의 장기화로 "많은 원전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2020년은 고비의 한 해였다"고 덧붙이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원자력 생태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형주 대표이사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사업소 간 기술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품질, 안전, 환경을 우선시하는 기업방침을 더욱 공고히 하여 회사와 직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의 발전정비회사를 목표로 쉼없이 달려온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발전정비시장에서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다. KAIF